美術史學硏究 第266號 2010. 6 pp. 93~121

朝鮮時代 官窯 靑磁 硏究

김 영 미*

Ⅰ. 머리말
Ⅱ. 관요 청자의 정의
Ⅲ. 관요 청자의 제작 배경
Ⅳ. 관요 청자의 시기별 특징
Ⅴ.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왕실용 도자를 생산하던 官窯에서는 白磁가 주로 생산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된 경기도 광주 지역 도요지에 대한 지표 및 발굴 조사 과정에서 청자편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15-17세기 운영된 일부 가마에서 백자와 함께 靑磁가 제작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1]

*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1 國立中央博物館, 『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道馬里 1號窯址』(1995); 國立中央博物館 · 京畿道博物館, 『京畿道廣州中央官窯』 地表調査報告書(2000); 畿甸文化財硏究院 · 廣州郡, 『廣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2000);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樊川里 5號, 仙東里 2 · 3號』(1985); _____, 『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 牛山里 9號窯址 發掘調査報告書』(1993); _____,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2007); _____, 『廣州 武甲里 10호 조선백자 도요지 인접지역』(2007); 朝鮮官窯博物館, 『廣州의 朝鮮白磁窯址－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2004);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白磁陶窯址』

조선시대 청자는 1965년 광주 퇴촌면 도마리 가마터 발굴을 계기로 '李朝靑磁象嵌'이란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이후 경기도 광주 지역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조선 청자가 17세기 까지 꾸준히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려의 전통을 잇는 분청사기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 조선시대 청자에 대한 연구는 전해지는 유물의 수량이 매우 적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고, 가마터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청자의 종류를 소개하거나 전세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기구분을 시도한 내용이었다.

조선시대 官窯에서 제작된 청자는 백자의 태토에 청자의 유약을 입힌 '白胎靑釉磁'로서 고려 청자와는 다른 계통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로 음식기로 사용되었던 대접 · 접시 · 잔 · 호 등은 백자와 같은 기형으로 제작되었고 기종의 변화에서도 백자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 외에 향로 · 의자〔墩〕 · 화분 · 그릇받침 등의 용기에서는 투각이나 상감 등의 고려 청자 장식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청자에 대한 기록으로 『經國大典註解』에 東宮은 靑器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 뚜렷한 사용처를 알 수 있어 주목된다.[3]

이에 필자는 1997년 경기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광주 지역 정밀지표조사에서 총 42개의 생산 요지를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관요 청자의 제작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청자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 동궁의 그릇으로 靑色의 자기를 제작하게 된 이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청자가 언제부터 동궁을 위한 그릇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 세 번째 관요 청자의 조형적 특징 및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고는

(1986); 海岡陶磁美術館, 『광주 건업리 조선백자 요지－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000); _____, 『광주의 백자요지(I)』(1992); _____, 『廣州 牛山里 白磁窯址－2號』(1995).

2 최순우 선생은 도마리 가마터에서 발굴된 청자를 고려시대 청자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崔淳雨, 「道馬里發掘調査略報」, 『考古美術』 6-6호〔韓國美術史學會, 1965〕, pp. 1-3). 그리고 정양모 선생은 조선시대 청자가 분청사기의 전통을 이은 것이며, 도마리와 우산리 초기백자 가마에서 계속 제작되었다고 하였다(鄭良謨, 「朝鮮王朝의 陶磁文化」, 『韓國美術全集』 10 李朝陶磁〔同和出版公社, 1973〕, pp. 5-6). 이후 광주 지역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윤용이 선생에 의해 17세기까지 꾸준히 제작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백자 태토를 가진 청자와 고려 청자의 전통을 잇는 상감청자로 구분되었다(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硏究」, 『考古美術』 151〔韓國美術史學會, 1981〕, pp 50-51; 鄭良謨 · 尹龍二 · 金得豊, 『韓國白磁陶窯址』〔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pp. 45-257). 이에 강경숙 선생은 분청사기는 고려 청자의 후신이며, 조선 청자는 백자 태토와 동일한 도자로 분청사기와는 다른 것으로 구분 지었다(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p. 355-356).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김영원 선생은 조선 전기 고려 청자의 양식을 따른 청태청자와 백태청자가 공존하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백자양식을 따른 백태청자로 변한다고 주장하였다(金英媛, 「朝鮮靑磁에 관한 再考察」, 『美術資料』 48〔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1-18; _____,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p. 249-292).

3 『經國大典註解』 後集 註解 下, 刑典, "白磁, 御膳用白磁器, 東宮用靑器, 禮賓用彩文器."

도 1 〈청자호〉, 조선 15-16세기, 총고 23.4cm, 구경 20.8cm, 저경 12.3cm, 보물 1071호, 호림박물관 소장

도 2 〈청자상감모란국화문향로편〉, 조선 1505년경, 높이 19.3cm, 경기도 광주 도마리 1호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朝鮮時代 官窯에서 제작된 靑磁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관요 청자의 정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각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관요 청자의 정의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는 주로 식기로 사용된 기종으로 대접 · 접시 · 잔 · 호 · 합 · 병 등의 종류가 있으며 기종 변화에서 백자와 동일한 양상을 띤다(도 1). 그 외에 소량의 대야〔盤〕 · 향로 · 의자〔墩〕 · 화분 · 받침 등이 제작되었으며 투각 · 상감 · 양각 · 음각 등에서 고려시대 청자의 장식기법을 계승하고 있다(도 2).

관요에서 발견된 청자는 육안으로 관찰할 때 흰색과 옅은 회색의 태토에 청색 유약을 시유한 양상이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자기의 분류 기준을 태토 성분에 두고 백색 태토는 백자계, 회색 태토는 청자 혹은 분청사기의 전통을 잇는 청자계로 분류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 청자 태토에 청자 유약을 시유한 분청사기와 조선 청자는 동일한 것처럼 보여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도자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경기도박물관에서 官窯産 조선 청자의 태토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4] 이 분석에서 육안으로 백자계와 청자계로 분류되었던 관요 청자류의 모든 태토를 대상으로 하였다. 도자 태토에 함유된 산화철과 산화티타늄은 백

도 3 〈청자상감모란문향로편〉, 조선 16세기 중반, 현높이 11cm,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출토, 경기도박물관 소장

색도의 성질을 잘 나타내는 성분이며, 그 기준치를 비교하면 백자와 청자 태토 구분이 가능하다.[5]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광주 관요에서 생산된 백자의 경우 대부분 산화철이 2.44% 이하, 산화티타늄이 0.25% 이하로 그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조선 청자 태토의 경우 산화철 1.27-2.82%과 티타늄 0.06-0.32%의 함량을 보여 백자계 태토임을 알 수 있다.[6] 이 중 청자계로 분류되었던 향로와 의자에 대한 태토의 분석치도 분청보다는 백자계에 가까운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 3).[7] 이에 비해 번천리 가마에서 출토된 분청은 산화철 2.19-4.58%과 티타늄 0.48-0.79%의 함량이 높아 백자의 태토와는 크게 차이가 나며 그 성분이 다름을 알 수 있다(표 1). 이러한 분석의 결과, 관요에서 제작된 조선

표 1 태토 성분 비교

성분 \ 종류	조선 청자	조선 백자	분청사기
산화철	1.27-2.82%	0.31-2.44%	2.19-4.58%
산화티타늄	0.06-0.32%	0.00- 0.25%	0.48-0.79%

4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 관요 종합분석 보고서』(2008), pp. 53-190.

5 이 두 가지 원소산화물의 함량이 적은 것이 백자원료의 필수조건으로 산화철(Fe_2O_3)의 함량이 적을수록 백색을 띠는데 경덕진 · 덕화요 · 정요 백자 함량에 비해 높은 수치로 조선 백자가 순수한 흰색보다 약간 회색이 도는 백자가 많은 것은 철산화물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영은 외, 「광주군 건업리 백자가마터에서 출토된 소문백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 『廣州 建業里 朝鮮白磁 窯址』 建業里 2號 가마遺蹟 發掘調査報告書〔海剛陶磁美術館, 2000〕, pp. 139-140).

6 분석치는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2008)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외에 조선시대 관요 청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백자 태토와 유사한 성격임을 밝히고 있다(강경인, 「조선시대 관요인 광주 번천리 출토 백자의 기술적인 연구」, 『보존과학회지』 제15호〔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3. 10〕, pp. 1-14; _____, 「광주 번천리 9호요지 출토 백자의 제작기술 특성」, 『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광주시, 2007〕 p. 203).

7 도마리 1호와 오전리 3호의 청자의자편은 광주 지역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것이고, 춘궁동 건물지에서 발견된 청자향로편은 백상감 모란문과 연주문 돌대 장식으로 보아 16세기 중엽 번천리 9호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도편은 고려 청자의 장식기법을 계승한 청자계 태토를 가진 것으로 분류되었으나, 분석결과 백자 태토와 가까운 성격으로 고려 청자나 분청사기와는 다른 태토이다(경기도박물관, 앞의 책〔2008〕; 京畿道博物館 · 韓國道路公社, 『春宮洞遺蹟』〔2003〕).

표 2 유약 성분 비교

성분 \ 종류	조선 청자	분청사기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산화철	0.85–2.39%	0.91–2.26%	1.10–1.41%	0.44–2.89%
산화티타늄	0.00–0.26%	0.02–0.17%	0.18–0.22%	0.00–0.13%

청자의 태토는 고려 청자의 전통을 잇는 분청사기와는 다른 백자계임라고 할 수 있다.[8]

그리고 조선 청자의 유약은 푸른색을 띠며 두텁게 시유되어 백자와 다르다. 이는 나무의 재를 이용해 유약을 만드는 전통적인 청자의 유약 제조방법이 계승된 것이며, 고려 청자와 분청사기에서처럼 조선 청자의 철과 티타늄 함량이 비교적 높아 유사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표 2).[9] 다만 유약 성분에 있어 고려 청자나 분청사기와 다른 점은 관요 청자에서 산화티타늄의 함량이 비교적 낮아 강한 환원의 분위기에서 하늘색을 띠게 되며 번천리 9호 청자에서 절정을 이룬다. 따라서 조선시대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는 백자와 동일한 태토에 청자유약을 입힌 새로운 개념의 청자이며 이전의 전통적인 청자와는 다른 새로운 '白胎青釉磁'라 할 수 있다.[10]

관요산 청자의자 · 청자향로 태토 분석

유물 종류	산화철	산화티타늄	출토지	제작시기
청자의자편(no. 367)	2.49%	0.32%	도마리 1호	1505년경
청자의자편(no. 164)	1.97%	0.20%	오전리 3호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청자향로편	2.22%	0.27%	춘궁동 건물지	16세기 중반

8 경기도 광주 외에 지방에서 백태청유자가 제작된 사례가 소량 발견되는데, 全羅南道 光州市 忠孝洞과 靈岩郡 白岫邑 天定里, 羅州郡 多侍面 雲峰里, 全羅北道 完州郡 花心里, 慶尙北道 尙州郡 大杓里 등 이다. 이들은 주로 분청사기 가마에서 함께 소량 제작되는 것이 특징이며 태토는 회백색이나 백색을 띤다. 지방 청자의 상한은 충효동 E2 지역에서 발견된 예로 보아 1420년경이며, 동궁의 기명으로 청자가 정해지는 1460년경 이전까지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심리에서 발견된 조선 청자들을 대상으로 성분분석을 한 결과 청자계와 백자계 태토가 모두 보여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국립광주박물관, 『전라남도 도요지 조사보고』 영암 · 해남 · 무안〔1986〕, pp. 8–15; _____,『전라남도 도요지 지표조사(II)』〔1988〕;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988〕, pp. 157–158; 전북문화재연구원, 『完州 花心里 遺蹟』〔2008〕, pp. 258–263; 張東哲,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硏究」, 『美術史學硏究』 257〔韓國美術史學會, 2008. 3〕).

9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2008)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고려 청자는 유천리 수습편을 기준으로 하였다.

10 청자의 명칭에 대해 최순우 선생은 '李朝青磁象嵌'라 하였고(崔淳雨, 앞의 글〔韓國美術史學會, 1965〕, pp. 1–3), 정양모 선생과 강경숙 선생은 '朝鮮青磁'라 부르고 있으며(鄭良謨, 앞의 글〔同和出版公社, 1973〕, pp. 5–6; 姜敬淑, 앞의 책〔一志社, 1989〕, pp. 355–356), 윤용이 선생과 김영원 선생은 '青磁'라는 명칭을 사용한다(尹龍二, 앞의 글〔韓國美術史學會, 1981〕, pp. 50–51; 김영원, 앞의 책〔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pp. 249–253). 그 외에

III. 관요 청자의 제작 배경

1. 왕실 내 청자 제작의 동기

본장에서는 조선시대 새로운 청자가 언제부터 동궁의 그릇으로 선택되었고 그 제작 배경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조선시대 청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이 『經國大典註解』와 『光海君日記』에 남아 있어 사용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明宗 10년(1555)에 완성된 『經國大典註解』 後集에 '御膳用으로는 白磁를, 東宮에서는 靑磁器를, 禮賓用으로는 彩磁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법으로 재정하였으며,[11] 『光海君日記』 卷102 8年 4月 23日 壬戌條(1616)에서 '大殿에서는 백자를 사용하고, 동궁은 청자기를, 예빈시에서는 옛부터 청옹아리화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17세기까지 여전히 왕실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이렇게 왕실의 법으로 명시된 동궁의 그릇인 청자는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에서 15세기 전반부터 백자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요 설치 이전 동궁에서 사용된 기명은 지방에서 공납된 분청사기였으며, 청자가 동궁의 기명으로 정해진 것은 世宗朝 白磁를 御器로 專用한 이후 어느 시기일 것이다.[13]

청자가 동궁의 기명으로 정해지기 이전 동궁에서 사용된 도자는 지방에서 공납된 분청사기이며 세자부를 칭하는 '敬承府'(1402-1418) 명문이 남아 있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도4).[14] 분청사기에서 세자부의 명칭은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15세기 전반에만 나타나고

도록의 유물 설명에 '靑釉白磁', '白胎靑釉磁'를 사용한 예가 있다(海剛陶磁美術館, 『海剛陶磁美術館』〔1990〕, p. 86; 세계도자엑스포, 『朝鮮陶磁五百年展』〔2003〕, p. 16).

11 주 3 참고.

12 『光海君日記』 卷102 8年 4月 23日 壬戌條, "……至於司饔院沙器, 大殿則用白磁器, 東宮則用靑磁器, 如內資內贍禮賓寺所用, 則幷依舊例用靑紅阿里畫, 計一年國用, 令司饔院一時燔造, 分上各處 …… 士大夫所用, 許容常白磁."

13 成俔(1439-1504) 『慵齋叢話』 卷之十, "……世宗朝御器, 專用白磁……"(민족문화추진회, 『國譯 大東野乘』 I〔1969〕, p. 655).

14 현재 전하는 분청사기에는 세자부를 뜻하는 경승부와 인수부 두 가지가 전하고 있다. 경승부는 태종 2년(1402) 양녕대군 禔를 세자로 책봉하면서 세자부가 되었고, 태종 18년(1418) 세자를 추방하고 대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정하면서 폐지될 때까지 존속한 임시관청이다. 경승부가 상감되어 있는 그릇으로 〈粉靑沙器印花菊花紋敬承府銘접시〉가 있다(姜敬淑, 『粉靑沙器硏究』〔一志社, 1986〕, pp. 31-32). 인수부는 定宗 2年(1400) 2月에 아우인 靖安公 李芳遠을 왕세자로 세우고 軍國重事를 관장케 한 뒤 世子府를 설치하여 인수부라 했으며, 定宗 2年 11月에 왕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므로 인수부는 약 10개월 동안 세자부로 존속했다. 그 후 上王殿 에 소속된 인수부가 1418년부터 15세기 중엽까지 존속하며 현존하는 '仁壽府'銘이 새겨진 분청사기는 상왕전에 소속

도 4 〈粉靑沙器印花紋 '敬承府'銘접시〉, 조선 1402-1418년, 높이 3.6cm, 구경 11cm, 저경 5cm,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있다. 그렇다면 명문으로 그릇의 사용처를 명시했던 것과 달리 색으로 어기인 백자와 동궁의 기명을 구분하게 된 그 시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와 관련하여 世祖 8年(1462) 왕과 세자의 그릇을 섞어 쓴 司饔院의 죄를 묻는 기록이 주목된다.

> "……名分을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거늘, 어제 司饔院에서 進膳하는 데에 世子의 器皿을 섞어 썼으니 심히 불가하다 ……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비와 아들이 그릇을 같이 하고 임금과 신하가 그릇을 같이 하며 주인과 종이 그릇을 같이 하는 것이니, 명분이 어디에 있으며 野人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15]

이 내용으로 보아 당시 세자의 기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임금과 세자의 기명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세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1년 후 이 사건으로 인해 사옹원 관리를 맡고 있던 判內侍府事 田畇이 파면되는 내용으로 보아 동궁 기명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16] 그 이유는 유교 이념의 실천으로서 禮가 추구하는 관계적 질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실록의 내용은 禮의 가장 기본 덕목인 '親親尊尊'으로 가족과 친

된 인수부의 그릇임을 뜻한다(金奉俊, 「15세기 우산리 출토 명문백자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71-74). 조선 초기 공납용 자기가 私藏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청명을 시문한 것이 태종 17년(1417) 이후이므로 세자부를 의미하는 명칭이 있는 분청사기는 경승부가 유일하다.

15 『世祖實錄』 卷29 8年 11月 30日 庚申條(1462), "御思政殿, 受常參親事, 命二品以上, 入侍設酌, 上謂禮曹判書李克培曰, 名分不可不嚴, 昨日司饔院進膳, 雜用世子器皿甚不可, 若是則父子同器, 君臣同器, 奴主同器矣, 名分何居, 與野人矣擇焉, 世子尙且視膳事, 孰大於御膳乎, 其司饔別坐, 罪尤重焉, 當丁寧告戒之"

16 『世祖實錄』 卷30 9年 2月 20日 己卯條(1463), "命罷判內侍府事田畇職"

도 5 〈청자 일괄〉, 조선 1440년경, 경기도 광주 우산리 4호 출토,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족관계 그리고 신분적 상하관계에서 통용되는 종법적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親親의 도리를 확장하여 백성에게 仁을 펼쳐가는 것을 聖王의 정치로 간주하였다.[17] 즉, 유교 정치 하에 종법적 질서를 분명히 하려는 禮의 실례로서 御器인 白磁와 東宮 器皿인 靑磁의 구분은 필연적 조치였을 것이다.

문헌의 내용을 뒷받침하듯 청자에서도 변화를 보인다. 15세기 전반 우산리 1 · 2 · 3호에서 제작된 죽절굽의 조질 청자가 사라지고 우산리 4호에서 다소 둔한 역삼각형굽의 양질 청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된다(도 5).[18] 우산리 4호와 14호 청자에는 '殿'과 '王'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주목된다. 궁궐의 건물들은 각 건물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의 신분에서 건물들의 품격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정해지며, 殿 · 堂 · 閣 · 齊 · 軒 · 樓 · 亭의 순으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19] '殿'이란 용어는 궁궐에서 왕과 관련된 勤政殿 · 思政殿과 같은 건물에만 붙일 수 있는 것이며 그릇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적용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직까지 청자가 동궁의 기명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위계질서에 따라 기명의 색을 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17 김미영, 「관계적 질서를 추구하는 유교의 일생의례」, 『종교와 일생의례』(민속원, 2006), pp. 55-67; 장재천, 「'禮'의 도덕교육적 가치」, 『韓國思想과 文化』 第27輯(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pp. 255-256.

18 우산리 4호의 유물은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지표조사하여 보관하고 있다.

19 세자의 공식적인 집무소인 東宮은 그다음 단계인 '堂'에 해당된다. 경복궁에 있는 資善堂 · 丕顯堂 · 繼照堂이라고 하며, 『世宗實錄』에서는 資善堂 밖에다 따로 궁을 지어 세자가 살도록 배려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다(洪順敏, 「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변천」〔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 pp. 202-204; 『世宗實錄』 卷93 23年 7月 25日 己未條〔1441〕).

이후 청자 그릇의 형태는 바로 양질 백자 식기류의 변화 양상과 동일해지고 그 변화의 시점은 15세기 후반경이다. 즉 이전부터 청자가 제작되고 있었으나 1460년경 동궁의 청자로 채택되어 관요 청자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당시 문헌 기록처럼 어선용으로는 백자를 동궁의 그릇으로 청자를 사용하였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렇듯 기명의 구분을 엄격히 한 임금인 세조는 역사적인 사실로 보아도 中央集權的 國家體制와 國王 中心의 政治秩序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 당시 集賢殿 폐지와 經筵을 중지하여 儒敎가 퇴보한 것으로 인식되나 세조는 儒敎와 朱子學, 易學, 陰陽 등 諸家의 학문을 두루 섭렵한 학자적 면모가 강한 왕이었으며, 유학자들에게 직접 지은 유교의 내용을 담은 「印地儀頌」을 강론할 정도였다.[20] 또한 『經國大典』 刑典이 세조 7년(1461) 반포되어 시행되는데, 이 형전의 해설서인 『經國大典註解』의 刑典條에 '御器는 白磁, 東宮은 靑磁器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 世祖 시기에 동궁의 기명으로 청자가 정해진 정황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왕실의 위계질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기인 백자와 다른 동궁의 기명을 구분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교적 이념을 도입하여 東宮을 상징하는 靑色의 청자를 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東宮의 器皿으로 靑色의 자기를 선택한 이유는 조선 왕조가 儒敎를 건국이념으로 삼은 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유교의 기본원리인 宇宙論은 無極인 太極에서 陰과 陽이 생성되고 여기서 다시 五行이 생겨나며 모든 사물을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21] 이러한 개념은 景福宮 조성에도 반영되었으며, 궁 안에서 왕의 거처인 內殿을 중심으로 왕세자 寢殿의 역할을 하는 '丕顯堂'과 便殿으로 사용된 '資善堂' 이 내전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22] 이것은

---

20 김용흠, 「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 『역사와 현실』 제64호(한국역사연구회, 2007. 6), pp. 239-241; 金泰永, 「조선초기 세조왕의 학술정책」, 『東洋學』 第25輯(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95. 10), pp. 135-144.

21 성리학의 이론은 고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사상적 기원은 周公이 저술한 『周禮』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周禮』와 함께 『周易』과 『詩經』 등의 상고시대의 저작을 공자가 체계화하여 유교로 발전시켰다. 그 후 기존 儒家들의 性論과 朱子 · 程子의 천리사상이 노장사상과 불교의 영향을 받아 심화되었는데 北宋代 周敦頤와 그의 『太極圖說』은 성리학의 시조가 된다. 조선에 전해져 陽村 權近(1352-1409), 三峯 鄭道傳(1342-1390),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珥(1536-1584) 계통의 理氣說로 전해졌다(琴章泰, 『朝鮮 前期의 儒學思想』〔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 89-98).

22 경복궁을 지을 때 원칙적인 기준이 된 것은 『周禮』 · 『禮記』 · 『儀禮』 등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중국의 고전들이었다. 『周禮』 考工記편에 규정되어 있는 '三門三朝'가 궁궐구조 조성에 교과서적인 원형을 이루는 것으로, 明代 『三才圖會』에서 궁궐의 구조에 관해서 『周禮』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朝位寢廟社稜圖'가 있다. 이후 임진왜란 화재로 소실되어 중창된 경복궁의 배치 계획상의 특징은 중건 당시의 상량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배치의 사상적 원리로서 역상(易象: 太極, 四象, 팔괘)을 취하였다. 유교적 원리가 궁궐조성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알

유교의 원리인 陰陽五行으로 풀이하면 왕이 될 인물인 세자는 새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동쪽에 처소를 둔 것이다. 또한 세자의 기물중 복식의 색을 정하는 中宗 32년(1537)의 기록에서도 세자와 靑色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세자의 복색을 정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참고할 만한 예가 없으므로 東方의 빛인 靑色을 따르는 대목이다.

> "세자가 융복으로 隨駕 할 때의 복색을 개정하라고 전교하셨는데 뒤에 곧 조정과 상의하였더니 우리나라의 고사에서 전례가 없으므로, 皇太子의 복색을 『大明曾典』에서 살폈으나 또한 의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동방의 빛을 따른다면 청색이 마땅할 듯한데,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23]

한편 중국의 문헌기록에서도 東宮이 春宮 · 靑宮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東方을 상징하는 靑色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隋書』와 『資治通鑑』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24] 이러한 문헌의 내용으로 보아 유교적 관념으로 東과 靑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동양의 오래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개념을 공유하고 있던 당시 明의 경우 東宮의 器皿을 靑色으로 구분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도자를 색으로 구분한 것은 洪武 9年 기록에 四郊各陵의 자기를 정하며 圜丘는 하늘을 상징하는 靑色, 方丘는 땅을 상징하는 黃色, 日壇은 해를 상징하는 赤色, 月壇은 달을 상징하는 白色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내용만이 전하고 있어 그릇을 구분하는 색의 개념이 조선과 달랐다.[25]

조선에서는 東宮의 器皿 선택에서 유교적 관점을 충실히 적용하여 동쪽에 해당하는 靑色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예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조선만의 독특한 상황

수 있다(洪順敏, 앞의 논문, pp. 71-84).

23 『中宗實錄』 卷83 32年 1月 19日 丁酉條(1537), "禮曹啓曰, 世子以戎服隨駕時, 服色改定事, 傳敎後, 卽與朝廷相議之, 則我國古事, 未有前例, 故皇太子服色, 考于《大明會典》, 亦無所據. 若從東方之色, 則靑色似當. 何以爲之傳曰, 從靑色可也."

24 『隋書』 卷22, "後周建德六年, 靑城門無故自崩, **靑者東方色春宮之象也**, 時皇太子無威儀禮節, 靑城門無故自崩者, 皇太子不勝任之"; 『資治通鑑』 卷172 宋 司馬光 撰 胡三省 音註 陳紀六, "言於帝曰皇太子仁孝無聞恐不了陛下家事愚臣短暗不足可信陛下恒以賀若弼有文武奇才 亦常以此爲憂帝以問弼對曰皇太子養德**春宮－太子居東宮東方主春故亦曰春宮**"

25 『大明會典』 卷 201, "洪武九年定, 四郊各陵瓷器, 圜丘靑色, 方丘黃色, 日壇赤色, 月壇白色, 行江西饒州府, 如式燒州解. 計各壇陳設, 太羹碗一, 和羹碗二, 毛血盤三, 著尊一, 犧尊一, 山罍, 大罍, 代簋, 簋, 籩, 豆, 瓷盤 二十八, 飮福爵一, 酒盅四十, 附余各一"

으로 왕과 세자의 그릇을 엄격히 구분하여 왕실의 위계질서를 분명히 하고자한 의도와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사회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의 정치이념과도 부합되는 사실이다.

다만 왕의 御器가 黃色이 아닌 白色인 이유는 世宗朝 御器를 白磁로 專用한 기록으로 보아 高麗의 靑磁와 다른 새로운 도자로서 白磁가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6] 이것은 백자가 유교의 미의식인 검약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27] 또한 明 황제의 복식과 그릇에서 황색과 五爪龍을 채용한 점을 고려하여 조선 왕의 복식은 붉은 비단을 사용하고 왕의 상징인 용의 발톱도 4개를 사용한 기록이 『國朝五禮儀序禮』 卷之二 嘉禮 '冠服圖說'과 '尊爵圖說'에 남아 있어 어기의 선택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官窯産 청자가 발견된 건물지는 주로 왕실과 관련된 곳인데 왕실 사찰인 檜岩寺址, 왕궁인 景福宮, 강화도 조선 궁전지 등이며, 동궁 기명으로 청자가 사용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28]

2. 용천요 청자의 확산과 교류

조선시대 관요 청자는 태토에 있어 고려 청자와 다른 백자 태토에 청자 유약을 입히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과정에는 중국 龍泉窯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전기에는 明에서 제작된 景德鎭의 백자와 청화백자, 龍泉窯의 청자 등이 사신을 통해 혹은 일본 열도의 류큐[琉球]와의 무역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입되고 있었다. 문헌기록에 전하는 청자의 교류관계 내용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용천요 청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은 명과의 대외관계를 통한 公貿易, 그리고 류큐와의 해상무역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도자기술의 자극으로 조선에서는 고려와 다른 신기술의 백자와 청자를 제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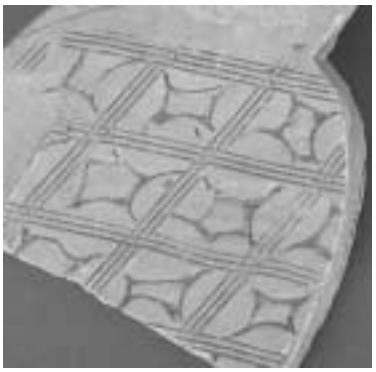
용천요는 浙江省 西南部 지역에 위치하며 南宋代부터 기술개발과 함께 본격적으로 요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元代는 해외무역 및 중국 내 청자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의 요장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明代 초에는 여전히 활발히 요업이 이루어졌으나 도자 생산의 중심이 景德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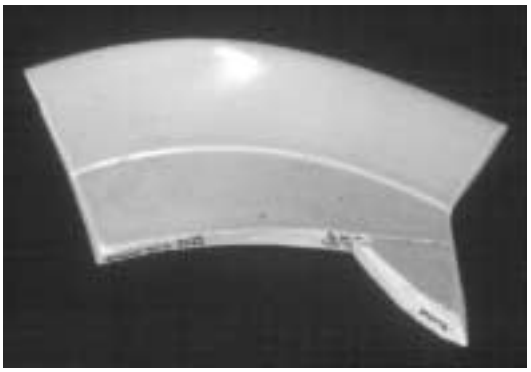
26 주 13 참고.

27 金元龍 · 安輝濬, 『韓國美術史』(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p.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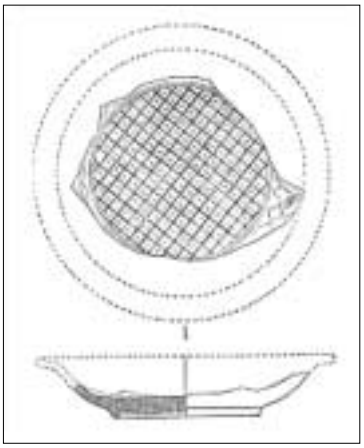
28 경기도 · 양주시 · 경기도박물관 · 경기문화재연구원, 『檜岩寺 I 시굴조사보고서』(2001), pp. 198-199; _____, 『檜岩寺 II 7 · 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본문(2003), pp. 313-314; _____, 『檜岩寺 III 5 · 6단지 발굴조사보고서』 본문(2009), p. 382; 국립문화재연구소, 『景福宮 咸和堂 · 緝敬堂 行閣址』(2008), p. 124; _____, 『景福宮 興福殿址』(2008), pp. 151-153; _____, 『景福宮 燒廚房址』(2008), pp. 232-234; 한림대학교 박물관 · 강화군, 『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2003), pp. 145-146.



도 6 〈청자양각동전문접시편〉,
조선 1552년경,
경기도 광주 번천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7 〈청자음각격자문접시편〉, 조선 1482년경,
경기도 광주 우산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8 〈青瓷格子大盤〉, 원말명초 14세기,
龍泉大窯 Y6 地區 출토

鎭으로 옮겨지면서 청자의 제작이 점점 쇠퇴된다.[29]

용천요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예는 우산리 9호와 번천리 9호에서 발견된 대형 접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번천리 9호에서 출토된 접시는 안바닥을 격자구획으로 나누고 각각의 구획선 안에 곡선의 마름모를 양각으로 시문한 모습이다(도 6). 그리고 우산리 9호의 접시에 보이는 성근 음각선은 번천리보다 시원적인 형태이며, 이러한 문양은 백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도 7). 그런데 이와 같은 동전문양의 청자접시가 중국 龍泉大窯 Y6 지역에서 출토되며 제작시기는 元末明初에 해당되며, 주로 중국에서 14세기 후반부터 유행한 문양이다(도 8).[30] 또한 15세기 류큐의 유

29 馮先銘, 『中國古陶瓷圖典』(文物出版社, 1998), pp. 319-320; 矢部良明 · 長谷部樂爾, 「明代の地方窯」, 『世界陶磁全集』 14 明(小學館, 1976), pp. 262-263; 朱伯謙, 「龍泉窯」, 『龍泉窯青瓷』(藝術家出版社, 1998), pp. 6-28; _____, 「龍泉窯青瓷概述」, 『中國龍泉窯青瓷』(浙江省文物局, 2001), pp.7-22; 叶英挺, 華雨農, 「大明處州龍泉官窯」, 『發見:大明處州龍泉官窯』(西泠印社出版社, 2005), pp. 1-33.

30 大窯는 龍泉具의 南으로 42.5km, 서남쪽에 小梅鎭 , 서북쪽에 查田이 7.5km 정도 떨어져 위치하며, 1960년 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에서 발굴한 것으로 北宋부터 元末明初에 해당하는 53개소의 등요식 가마가 분포하는 대규모이다(朱伯謙, 「龍泉大窯古瓷窯遺址發掘報告」, 『龍泉青瓷研究』〔文物出版社, 1989〕, pp. 38-67).

적인 首里城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青磁古錢文大盤〉가 출토되었다(도 9).[31] 류큐는 현재 日本의 남단인 오키나와 제도에 있었던 나라로 15-16세기 명 · 조선 · 일본 ·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계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던 해상왕국이었으며 용천요산 청자가 이들의 중요 무역품 중 하나였다.[32] 청자가 명을 상대로 한 류큐의 중계무역으로 조선에 전해졌으며 류큐의 중계무역은 용천요 청자가 조선에 전달되는 주요 루트였음을 알 수 있다.

도 9 〈青瓷古錢文大盤〉, 明 15세기, 龍泉窯, 首里城 출토

용천요 청자는 명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함께 일본 · 류큐와의 무역을 통해 전해졌다. 당시의 무역은 명 태조의 동아시아 지배정책인 事大交隣에 의한 사행무역 즉, 사신을 통해 공적인 진헌과 회사의 방법으로만 가능했다.[33] 이러한 방법으로 명에서 유입된 청자는 文宗 元年(1450) 명의 사신 尹鳳이 진헌한 예물 중 청자 찻잔, 술잔, 주병이 전해진 단 한 건의 기록이 있다.[34] 그러나 실록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 日本 및 琉球와의 교류 내용 중 청자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다(표 3).

이렇게 명의 용천요 청자가 류큐를 통해 조선에 들어온 공식적인 기록은 世宗 1년부터

---

31 현재 日本의 沖縄縣(오키나와)에 위치하며 永樂 4년(1406) 尙巴志가 中山국을 멸망시키고 류큐 본토의 통일을 시키면서 수도를 首里城으로 정하고 이후 1879년까지 약 500년간 류큐국의 왕궁으로 사용된 성이다. 城內 유적 중 1459년 화재로 소실된 倉庫 자리에서 다량의 무역도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해상무역활동을 벌이면서 수입한 明代 景德鎭의 青花龍文馬上杯를 포함하여 518개의 도자가 포함되어 있다(金城龜信, 「首里城 '京の內'跡の發掘調査概要」, 『首里城 京の內展』〔沖縄縣立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1〕, pp. 71-80).

32 明永樂 2년(1404년) 琉球國山南王의 使臣이 명 황제가 이미 정한 私貿易禁止令을 어기면서까지 白金을 주고 용천지역인 處州 청자를 구입하고자 하자, 明의 成祖가 '遠之人 知求利而已'라 하며 이를 허락하였다는 『皇命實錄』 기록으로 당시 많은 양의 용천요 자기가 류큐 지역에 수출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관련하여 일본 지역 발굴 결과 首里城 · 浦添城 · 阿波城 · 伊祖城址 등에서 용천요 청자가 출토되어 류큐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朱伯謙, 「龍泉青瓷簡史」, 앞의 책〔文物出版社, 1989〕, p. 32).

33 조공관계는 明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 · 경제 · 문화 관계까지도 포괄하는 질서였다. 조공이란 중국의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주위의 민족이나 국가가 사신을 보내 일정한 공물을 바치면 중국의 황제는 回賜品 또는 賞賜品을 내려주는 경제 행위를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2 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1995〕, pp. 302-304).

34 『世祖實錄』 卷29 8年 11月 30日 庚申條(1462), "御思政殿, 受常參親事, 命二品以上, 入侍設酌, 上謂禮曹判書李克培曰, 名分不可不嚴, 昨日司饔院進膳, 雜用世子器皿甚不可, 若是則父子同器, 君臣同器, 奴主同器矣, 名分何居, 與野人矣擇焉, 世子尙且視膳事, 孰大於御膳乎, 其司饔別坐, 罪尤重焉, 當丁寧告戒之."

표 3 조선시대 수입 청자

나라	년도	출전	실록의 내용	수입 청자의 종류
明	1450년	文宗 즉위년 8월 6일 丁丑	明 使臣 尹鳳이 禮物을 바치다	純青小碗子十事, 純青酒注一事, 純青鍾六事
琉球	1418년	世宗 1년 8월 14일 辛卯	琉球國王의 次男 賀通連	青磁器 十事, 青磁花甁 1箇
	1431년	世宗 13년 11월 14일 乙亥	琉球國 正使 夏禮久	青磁杯 1事
	1477년	成宗 8년 6월 6일 辛丑	琉球國王(尙德)의 使臣 琉球國王 尙德遣內原里主	種樹器青磁 1對, 青磁香爐 1箇
	1480년	成宗 11년 6월 7일 丙辰	琉球國王(尙德)의 使臣 敬宗	青磁酒海 1箇, 青磁鉢 2枚
	1494년	成宗 25년 5월 11일 戊戌	琉球國 使僧 天章	長八尺 青瓷嗽器 1箇
日本	1423년	世宗 5년 9월 24일 壬寅	日本國 筑前州太守 藤源滿貞 및 그 幕下의 備州刺史	青磁盆 70箇
	1423년	世宗 5년 10월 15일 壬戌	日本 九州 多多良德雄, 平滿景 등	青磁茶椀 30箇, 青磁盤 30箇,
	1450년	文宗 元年 10월 7일 丁丑	日本國 關西 肥州와 竺州의 太守	青磁酒具와 同臺
	1474년	成宗 5년 12월 24일 乙巳	日本國 京城管領 畠山殿 左京大夫	青磁大碗 2口

成宗 25년까지 5건이며, 청자의 종류는 화병 · 화분 · 향로 · 주해 등이 대부분이다.

IV. 관요 청자의 시기별 특징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에서 제작된 청자는 백태청유자의 성격을 띠며 조형상 백자와 동일한 형태의 식기류가 주류를 이루고, 장식 · 문양에서 고려 청자의 전통적인 요소가 보이는 향로 · 화분 · 의자 등이 있다. 제작 시기는 1420년경부터 1659년까지 약 240년이란 오랜 기간의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들 청자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청자대접의 굽 형식과 유색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청자의 변천은 성립기(1420-1460년경), 전성기(1460-1592년경), 쇠퇴기(1592-1659년경) 세 단계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1. 성립기(1420-1460년경)

성립기는 조선 청자가 왕세자의 기명으로 정해지기 이전의 단계이며, 백태청유자가 제

작되기 시작하는 성립기 I기와 기술적으로 성숙하는 성립기 II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420-1440년경에 해당하는 성립기 I기는 백태청유자의 제작 기술이 도입되어 경기도 광주 지역 가마에서 제작되는 시기이다. 청자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 등의 일상용기로 단순하며 이들의 특징은 죽절굽을 가진 조질 청자라는 점이다.[35] 유약은 두텁게 시유되어 짙은 녹색을 띠며 굵은 빙열이 보인다(도 10). 우산리 1 · 2 · 3호, 건업리 1 · 2호 가마에서 이러한 청자가 발견된다.

도 10 〈청자대접편〉, 조선 1420년경, 경기도 광주 우산리 1호 출토, 해강도자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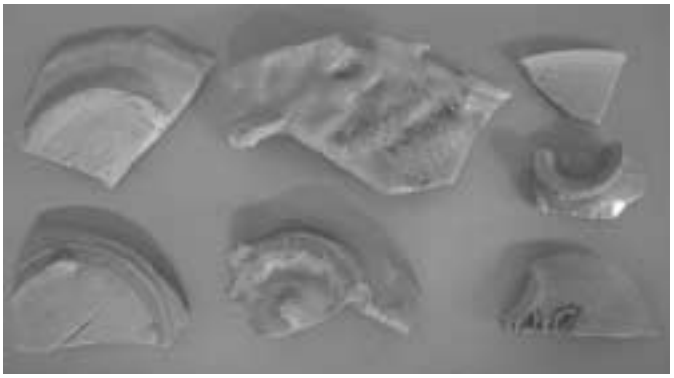
백태청유자의 발생 상한을 1420년으로 보는 이유는 1424-1432년에 작성된 『世宗實錄』「地理志」에 所山 下品이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소산을 우산리로 추정하고 이 지역에서 주로 조질인 죽절굽 백자와 함께 청자가 제작된 것에 기인한다.[36]

이후 1440-1460년경에 해당하는 성립기 II기는 청자가 기술적으로 성숙하여 더 이상 죽절굽형식의 대접이 보이지 않으며, 역삼각형굽 대접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다. 이 시기의 청자에는 '殿 · 王 · 二 · 三 · 五' 등 새로운 음각명문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도 5). 그릇의 종류도 다양해져 대접, 접시, 화형잔이나 흑상감의 자라병, 의자 등이 제작되는데 이것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가능하였을 것이다(도 11). 청자의 유약은 두께가 다소 얇아지며 그릇 전체에 고루 시유되고, 유색은 짙은 녹색과 옅은 녹색 등 다양하게 보인다. 이 시기에 청자를 생산한 가마는 우산리 4 · 8 · 14호가 있다.

성립기 II기의 상한을 1440년으로 보는데, 근거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1430년대 광주 지역에서 분청 제작이 끝나고 백자 제작으로 빠르게 변화한 상황으로 보아

35 죽절굽은 대마디굽이라고도 하며 굽을 대마디처럼 대충 다듬어 만들고 굽 주위에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모습이다.

36 도수리에서 출토된 말기 상감청자와 〈분청상감연당초문대접〉의 문양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의 羔峴의 지명이 도수리 6호로 추정하고 있어 1420-1432년경 주로 가마가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번천리의 분청사기 가마에서 출토된 성긴 문양의 인화기법과 번천분청 2호에서 갑발을 이용한 정세한 백자가 함께 소성된 점 등을 고려하여 『세종실록』「지리지」의 상품을 제작한 것으로 기록한 伐乙로 추정하여 1425년 전후 1440년대로 시기를 잡고 있다(姜敬淑, 「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59-61).



도 11 〈청자 일괄〉, 조선 1440년경, 경기도 광주 우산리 14호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옹원의 사기소 설치 이전 왕실의 후원으로 질적인 성숙이 있었을 가능성,[37] 두 번째 世宗 13년(1431) 이후 明이 요구하던 조공품 중 金銀歲貢의 부담이 없어지고,[38] 明 使臣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사신을 통한 貿易이 빈번해지고 선진문물의 전래가 본격화되어 새로운 유행의 도자로서 역삼각형굽의 백자와 청자 제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다.[39] 세 번째 우산리 4호에서 발견되는 도자 祭器로 보아 제기를 金屬器 대신 磁器로 대체하라는 『세종실록』의 내용,[40] 그리고 금속기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충효동 분청사기 제기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1450년 이전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도 12).[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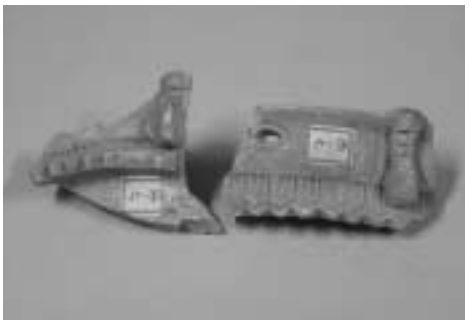
37 강경숙, 「초기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일고찰」, 『泰東古典硏究』 10(태동고전연구소, 1993), pp. 957-1013; _____, 앞의 글(경기도박물관, 2001), pp. 58-64;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2000), pp. 353-363.

38 『明宣宗實錄』 卷59 宣德 4年 10月 18日 辛卯條(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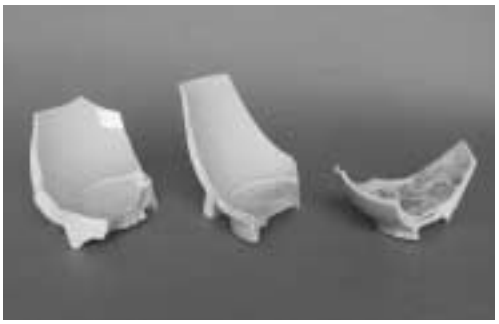
39 조선 전기 明 사신이 도자를 들여온 횟수는 총 15건으로 그중 1429년부터 1431년까지 도자의 무역의 횟수는 10건으로 가장 빈번하다(『太宗實錄』 卷15 太宗 8年 4月 17日 乙未條〔1408〕; 『世宗實錄』 卷41 世宗 10年 7月 19日 己巳條〔1428〕; 『世宗實錄』 卷41 世宗 10年 7月 25日 乙亥條〔1428〕; 『世宗實錄』 卷43 世宗 11年 1月 27日 甲戌條〔1429〕;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5月 2日 丁未條〔1429〕;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5月 15日 庚申條〔1429〕; 『世宗實錄』 卷46 世宗 11年 11月 12日 甲寅條〔1429〕; 『世宗實錄』 卷44 世宗 11年 6月 10日 乙酉條〔1429〕; 『世宗實錄』 卷45 世宗 11年 7月 15日 己未條〔1429〕; 『世宗實錄』 卷49 世宗 12年 7月 17日 乙卯條〔1430〕; 『世宗實錄』 卷53 世宗 13年 7月 22日 甲申條〔1431〕; 『世宗實錄』 卷86 世宗 21年 9月 1日 丙午條〔1439〕; 『文宗實錄』 卷3 文宗 卽位年 8月 6日 丁丑條〔1450〕).

40 『世宗實錄』 卷22, 5年 10月 27日 甲戌條(1423), "…… 禮曹啓 …… 今奉常寺所造圓壇祭器內簠簋大尊象尊壺尊著尊 犧尊山罍罍洗香爐用磁器 … 從之."

41 충효동에서 1423-1450년경 제작된 분청사기 제기들은 형태와 문양에서 祭器圖說의 내용을 충실히 따라 상감기법으로 금속기의 문양을 표현하고 있으며, 유태도 정선되어 제작방법과 질이 우수한 것으로 보았다(정소라, 「朝鮮時代 陶磁祭器 硏究」 忠孝洞出土 粉靑祭器를 中心으로〔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65-67).



도 12 〈제기 일괄〉, 조선 1440년경,
경기도 광주 우산리 4호 출토,
경기도자박물관 소장



도 13 〈청자대접편〉, 조선 1552년경,
경기도 광주 번천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2. 전성기(1460–1592년경)

전성기는 세자의 기명으로 청자가 쓰여진 시기로 기술이 성숙되어 다양한 기형과 하늘색 유색이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 광주 지역에 司饔院의 分院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왕실을 위한 御器인 白磁와 東宮의 靑磁가 제작된다.[42]

청자의 대접은 내저원각의 지름이 굽의 지름보다 넓고, 굽에는 명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식기 종류는 대접 · 접시 · 합 · 호 · 자라병 · 편병 등 다양하다. 유색은 유약의 두께가 얇아지고 하늘색 계통으로 최고 절정의 색을 가장 잘 보여주며 고려시대 녹색 계열의 청자 翡色과는 다르다. 즉, 조선시대 儒敎이념을 바탕으로 東宮을 상징하는 靑色을 표현하고자 한 의도가 그릇에 가장 잘 반영된 것이다(도 13).

---

42 정양모 선생은 분원의 설치시기를 宣祖年間(1567–1607년)이라 하였고(鄭良謀, 「司饔院과 分院」, 『國寶』 8 白磁 · 粉靑沙器〔藝耕産業社, 1984〕, pp. 189–193), 이후 윤용이 선생은 15세기 중엽인 世祖年間(1455–1468)으로 보았으며(尹龍二, 『朝鮮時代 分院의 變遷에 관한 硏究』〔成均館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p. 87), 강경숙 선생은 『經國大典』 「工典」 편찬즈음 분원이 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아 1469–1470년경이라고 주장하였다(姜敬淑, 「分院成立時期에 관한 小考」, 『蕉雨黃壽永博士古稀記念 美術史學論叢』〔通文館, 1988〕, p. 657). 이에 김영원 선생은 1467년 4월 司饔房이 司饔院으로 개칭하고 祿官을 두었음을 주장하였고(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時期區分」,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學硏文化史, 1995〕, p. 54), 최근 연구로서 김윤정 선생은 磁器 제작이 內侍 중심의 監造 체계에서 정식 행정 기구인 祿官을 둔 司饔院으로 개편되는 1467년을 관요 설치 시기로 보았고(김윤정, 「高麗 末 · 朝鮮 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 『美術史學硏究』 260〔韓國美術史學會, 2008. 12〕, pp. 56–59), 전승창 선생은 1466년 工曹에서 백자의 제작과 백토 관리를 制書有違律로 다루고 있어 이를 근거로 관요가 설치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田勝昌, 「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硏究」〔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pp. 76–78).

도 14 〈청자투각연화문의자편〉, 조선 1505년경,
경기도 광주 도마리 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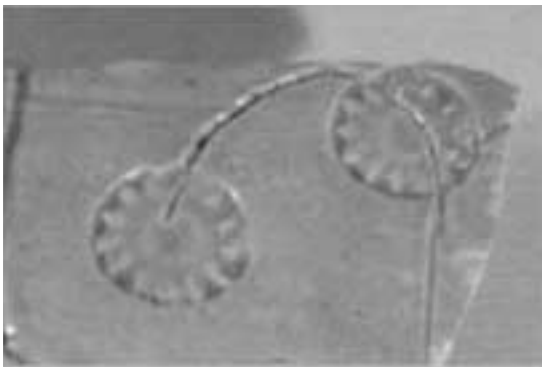
도 15 〈청자투각연화문의자편〉, 고려 13세기,
전남 부안군 유천리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16 〈청자상감모란국화문향로〉 부분,
조선 1505년경,
경기도 광주 도마리 1호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또한 청자 의자 · 향로 · 화분 · 그릇받침 등 화려한 기종들이 눈에 띠게 많이 제작된다.[43] 청자의자는 등나무문, 연화문, 법륜문이 화려하게 투각된 모습이며 고려시대 유천리 産 청자와 매우 유사하다(도 14, 15). 그리고 향로는 전체적인 조형과 세부장식에 금속기의 특징을 보인다. 좀더 자세히 상감기법으로 장식한 국화 장식을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단순하게 생략되어 가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산리 9호와 도마리 1호 출토 청자향로의 국화문은 사실적인 모습으로 가늘고 작은 꽃잎이 여러 장 달려 있으며 잎사귀가 펼쳐진 모습으로 세밀하게 표현되었다(도 16). 그러나 1552년경 제작된 번천리 9호 출토 청자향로의 국화문은 좀더 간략화된 모습으로 꽃의 잎사귀가 가지처럼 한 줄씩 뻗어 있는 모습으로 변하였다(도 17). 쇠퇴기인 17세기에 접어들면 상감 대신 인화기법으로 시문된다(도 18). 상감기법으로 장식된 매화 · 모란문도 사실적

43 嗜好的 취향의 화려한 기명들이 도마리 1호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주목된다. 특이하게 도마리에서는 청자로 제작된 식기류는 출토되지 않았다. 가마터에서 '己丑八年銘四角棒'이 발견되어 燕山君 11년경(1505) 운영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연산군의 재위 기간 중 고려의 귀족 취향의 청자들이 다수 제작된 점을 고려하여 동궁에 제한적 사용이 아닌 왕실용 기물로써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1995〕, p. 80).

도 17 〈청자상감국화매화문향로〉 부분,
조선 1552년경,
경기도 광주 번천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18 〈청자인화국화문향로〉 부분, 조선 1608년경,
경기도 광주 학동리 10호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표현에서 단순화 하는 흐름이 동일하다.

전성기에 운영된 가마는 우산리 9호, 귀여리 11호, 도마리 1호, 번천리 9호, 무갑리 2호, 열미리 5호, 학동리 4호 등 총 24기이다.

3. 쇠퇴기(1592-1659년경)

청자 시기 구분의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에 접어들면 청자는 동궁의 기명으로 여전히 제작되고 있으나, 청자의 기종이 전에 비해 줄어들고, 유색이 전체적으로 황색기가 감도는 황록색을 띠게 된다.

대표적인 기종인 대접의 경우 역삼각형굽에 내저원각의 지름이 굽의 지름보다 작아지는 경향이다(도 19). 그릇의 종류는 대접 · 접시로 한정되며, 그 외 향로 · 화분 등의 수량과 종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제작된다. 향로에 장식된 연주문 돌대와 국화 · 매화문 장식이 생략되고 간략화된 모습이다.

생산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송정동 1호이며 이곳에서 己丑銘 청자와 함께 己亥銘 백자가 발견되어, 현재까지 조사 결과 1659년경까지 백태청유자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도 20).[44] 청자가 발견되는 곳은 정지리 3호 · 탄벌리 1호 · 학동리 9호 · 상림리 1

44 국립중앙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앞의 책(2000), pp. 332-333.

도 19 〈청자 일괄〉, 조선 1640-1649년,
경기도 광주 선동리 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20 〈청자 '己丑'명접시편〉,
조선 1649-1659년,
경기도 광주 송정리 1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호 · 선동리 1호 · 송정리 1호 등 11개소 도요지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도요지에서의 상황은 1659년 청자 제작이 끝나지만 『王世子嘉禮都監儀軌』에서는 청자의 사용이 약 60년간 더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왕세자가례도감의궤로 알려진 仁祖 5년(1627)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부터 肅宗 44년(1718)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까지 총 5건의 의궤에서 왕세자의 기명으로 사용된 청자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司饔房排設에 식기 종류인 靑磁鉢 · 靑鐘子 · 靑甫兒 · 靑圓貼 · 靑貼是 · 靑大貼이 세트를 이루며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표 4). 이후의 가례도감의궤 사옹방배설에서 청자기의 사용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문헌에 전하는 동궁의 기명인 청자가 제작지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숙종 44년까지 사용되다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청자 소멸의 이유는 시대를 올라가 1616년의 『광해군일기』에서 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왕실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기명 구분이 흐트러지므로, 다시 과거 例에 의해 신분에 따른 기명의 구분을 엄격히 하고자 강조한 기록이 눈에 띈다.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상하가 서로 능멸하여, 儀章에 분별이 없고 名器가 엄하지 않습

표 4 『왕세자가례도감의궤』의 청자 종류

의궤 종류	연도	청자 종류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인조 5년(1627)	**司饔房排設** 青沙鉢二竹二內-水剌間二竹 酒房二內 青圓貼五 青大貼四內-水剌間二 酒房二 青甫兒九內-水剌間六 酒房三 青貼是三竹六內-水剌間三竹 酒房六 青鐘子一竹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효종 2년(1651)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현종 12년(1671)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숙종 32년(1695)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	숙종 44년(1718)	

표 5 관요 청자의 시기별 특징

시기	특징	출토가마
I. 성립기 1420-1460년경	· 동궁 기명 선택 이전 · 백태청유자 기술 도입 · 짙은 녹색의 두터운 유약 · 단순기종: 대접, 접시, 잔, 자라병, 의자	번천리 21호, 우산리 1 · 2 · 3 · 4 · 8 · 14호, 건업리 1 · 2호
II. 전성기 1460-1592년경	· 동궁의 기명으로 채택 · 하늘색과 옅은 녹색의 얇은 유약 · 다양한 기종: 대접, 접시, 잔, 호, 뚜껑, 향로, 화분, 의자 등	우산리 9 · 15호, 도마리 1호, 번천리 3 · 9호, 오전리 3호, 관음리 4 · 10 · 11 · 20 · 21 · 22호, 귀여리 11호, 무갑리 2 · 8 · 10 · 18호, 열미리 5호, 학동리 4 · 5 · 6호, 대쌍령리 1호, 곤지암리 4호
III. 쇠퇴기 1592-1659년경	· 동궁 기명으로서 청자 의미 유실 · 황록색 유조 · 단순기종 : 대접, 접시, 향로, 제기	정지리 3호, 탄벌리 1 · 8호, 학동리 9 · 10호, 상림리 1 · 10 · 11호, 선동리 1호, 송정리 1 · 5호

니다. 이에 服式이나 器用에 있어서도 앞다투어 분수를 범하는데도 조금도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옹원의 沙器에 이르러서는 大殿은 백자기를 쓰고 동궁은 청자기를 쓰며 …… 사대부가 쓰는 것은 일반 白器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45]

결국 조선 전기 규정화한 백자조차 어기로서 제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대부층까지 사용을 허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어기인 백자와 색으로 구분을 두었던 청자의 사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므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다(표 5).

[45] 『光海君日記』 卷102 8年 4月 23日 壬戌條, "……至於司饔院沙器, 大殿則用白磁器, 東宮則用靑磁器, 如內資內贍禮賓寺所用, 則幷依舊例用靑紅阿里畵, 計一年國用, 令司饔院一時燔造, 分上各處…… 士大夫所用, 許容常白磁."

V. 맺음말

이제까지 조선시대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에 대하여 정의 · 배경 ·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관요에서 제작된 청자는 양질 백자와 동일한 형태에 청색 유약을 시유한 '白胎靑釉磁'이며, 1420년경부터 1659년까지 제작된 동궁의 그릇임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동궁 기명의 선택과 특징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동궁의 기명이 청자인 이유는 유교의 원리에 따라 이제 곧 왕이 될 인물인 세자는 새벽에 해당하는 동쪽을 상징하며 동은 곧 청색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궁의 기명을 청색으로 구분한 것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儒敎的 의미를 器皿에도 적용한 조선만의 독특한 상황이다.

두 번째, 동궁의 기명인 청자가 관요에서 제작되는 시기는 1460-1659년경이며, 사용 시기는『왕세자가례도감의궤』내용으로 1718년까지 확인된다. 1460년경 세조의 기명구분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명되어 어기인 백자와 색으로 구분된 동궁의 청자가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조선 후기 器皿구분의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사라진다.

세 번째, 동궁의 기명은 양질 백자와 동일한 형태에 청색 유약을 시유한 청자이며 관요에서 제작되었다. 성립기(1420-1460년)는 청자가 동궁의 기명으로 정해지기 이전이며, 백태청유자의 제작이 시작되고 기술적으로 성숙하는 시기이다. 대접 굽의 형식이 죽절형굽에서 역삼각형굽으로 변화하며 진한 녹색의 유약이 두텁게 시유된다. 전성기(1460-1592년)는 동궁의 기명으로 청자가 정해지며 활발히 청자가 제작되는 시기이다. 역삼각형굽의 양질 청자 대접이 본격적으로 제작되며, 다양한 기종의 청자가 제작된다. 얇게 시유된 유색은 하늘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유교이념에서 의미하는 靑의 빛깔이다. 쇠퇴기(1592-1659년)는 청자가 동궁의 기명으로서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시기이다. 청자의 기종이 단순해지고, 유색은 황록색을 띤다. 조선시대 청자는 앞으로 더 많은 유물의 발견과 가마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연구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 논고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조사를 토대로 청자의 제작 배경과 성격을 규명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주제어(key words)** __ 官窯(*Gwanyo*: Royal kilns/ Government kilns), 白胎靑釉磁(*Baektaecheongyuja*: White porcelain with celadon glaze), 東宮(*Donggung* : Crown Prince/ Crown Prince's palace), 司饔院(*Saongwon* : Royal palace catering office), 龍泉窯(Longquan kiln)

투고일 2010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0년 3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0년 4월 16일

참고문헌

史料

『經國大典註解』

『國朝五禮儀序禮』

『朝鮮王朝實錄』

『慵齋叢話』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景宗宣懿后嘉禮都監儀軌』

『大明會典』卷201

『明宣宗實錄』卷59

『隋書』卷22

『資治通鑑』卷172

圖錄

海剛陶磁美術館,『海剛陶磁美術館』, 1990.

세계도자엑스포,『朝鮮陶磁五百年展』, 2003.

전라북도 부안군,『부안 유천리 고려도자』, 2006.

調査報告書

경기도 · 양주시 · 경기도박물관 · 경기문화재연구원,『檜岩寺 I 시굴조사보고서』, 2001.

_____,『檜岩寺 II 7 · 8단지 발굴조사보고서』, 2003.

_____,『檜岩寺 III 5 · 6단지 발굴조사보고서』, 2009.

國立中央博物館,『廣州郡 道馬里 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一道馬里 1號窯址』, 1995.

國立中央博物館 · 京畿道博物館,『京畿道廣州中央官窯』地表調査報告書, 2000.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 도요지 조사보고』영암 · 해남 · 무안, 1986.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 도요지 지표조사(II)』, 1988.

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무등산 충효동 가마터』, 1988.

국립문화재연구소,『景福宮 咸和堂 · 緝敬堂 行閣址』, 2008.

_____,『景福宮 興福殿址』, 2008.

_____,『景福宮 燒廚房址』, 2008.

畿甸文化財硏究院 · 廣州郡,『廣州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2000.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廣州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書－樊川里 5號, 仙東里 2 · 3號』, 1985.

_____,『朝鮮白磁窯址 發掘調査報告展－附 廣州 牛山里 9號窯址 發掘調査報告書』, 1993.

_____,『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2007.

_____,『廣州 武甲里 10號 조선백자 도요지 인접지역』, 2007.

朝鮮官窯博物館,『廣州의 朝鮮白磁窯址－廣州市內 朝鮮時代 磁器窯址 分布現況』, 2004.

전북문화재연구원,『完州 花心里 遺蹟』, 2008.

韓國精神文化硏究院,『韓國白磁陶窯址』, 1986.

한림대학교박물관 · 강화군,『강화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 2003.

海岡陶磁美術館,『광주의 백자요지(I)』, 1992.

_____,『廣州 牛山里 白磁窯址－2號』, 1995.

_____,『광주 건업리 조선백자 요지－건업리 2호 가마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0.

單行本

姜敬淑,『韓國陶磁史』, 一志社, 1989.

姜敬淑,『粉靑沙器硏究』, 一志社, 1986.

金英媛,『朝鮮前期 陶磁의 硏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學硏文化史, 1995.

_____,『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琴章泰,『朝鮮 前期의 儒學思想』,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金元龍 · 安輝濬,『韓國美術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馮先銘,『中國古陶瓷圖典』, 文物出版社, 1998.

朱伯謙,『龍泉窯靑瓷』, 藝術家出版社, 1998.

_____,『龍泉靑瓷硏究』, 文物出版社, 1989.

_____,『中國龍泉窯靑瓷』, 浙江省文物局, 2001.

叶英挺 · 華雨農,『發見: 大明處州龍泉官窯』, 西泠印社出版社, 2005.

論文

姜敬淑,「초기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일고찰」,『泰東古典硏究』10, 태동고전연구소, 1993, pp. 953-1013.

_____,「分院成立時期에 관한 小考」,『蕉雨黃壽永博士古稀記念 美術史學論叢』, 通文館, 1988, p. 657.

_____,「광주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2001, pp. 59-61.

강경인,「조선시대 관요인 광주 번천리 출토 백자의 기술적인 연구」,『보존과학회지』제15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03. 10, pp. 1-14.

_____,「광주 번천리 9호요지 출토 백자의 제작기술 특성」,『廣州 樊川里 9號 朝鮮白磁窯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경기도 광주시, 2007, p. 203.

김미영,「관계적 질서를 추구하는 유교의 일생의례」,『종교와 일생의례』, 민속원, 2006, pp. 55-67.

金奉俊,「15세기 우산리 출토 명문백자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 71-74.

金英媛,「朝鮮靑磁에 관한 再考察」,『美術資料』48, 국립중앙박물관, 1991, pp. 1-18.

김윤정,「高麗 末 · 朝鮮 初 王室用 磁器의 제작 체계 연구」,『美術史學硏究』260, 韓國美術史學會, 2008. 12, pp. 56-59.

김용흠,「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역사와 현실』제6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7. 6, pp. 239-241.

金泰永,「조선초기 세조왕의 학술정책」,『東洋學』第25輯,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995. 10, pp. 135-144.

崔淳雨,「道馬里發掘調査略報」,『考古美術』6-6호, 韓國美術史學會, 1965. pp. 1-3.

이영은 외,「광주군 건업리 백자가마터에서 출토된 소문백자에 대한 과학기술적 연구」,『廣州 建業里 朝鮮白磁 窯址』建業里 2號 가마遺蹟 發掘調査報告書, 海剛陶磁美術館, 2000, pp. 139-140.

尹龍二,「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硏究」,『考古美術』151, 韓國美術史學會, 1981, pp. 50-51.

張東哲,「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硏究」,『美術史學硏究』257, 韓國美術史學會, 2008. 3, pp. 18-20.

장재천,「'禮'의 도덕교육적 가치」,『韓國思想과 文化』第27輯, 한국사상문화학회, 2005, pp. 255-256.

정소라,「朝鮮時代 陶磁祭器 硏究」忠孝洞出土 粉靑祭器를 中心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65-67.

鄭良謨,「朝鮮王朝의 陶磁文化」,『韓國美術全集』10 李朝陶磁, 同和出版公社, 1973, pp. 5-6.

_____,「司饔院과 分院」,『國寶』8 白磁 · 粉靑沙器, 藝耕産業社, 1984, pp. 189-193.

鄭良謨 · 尹龍二 · 金得豊,『韓國白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pp. 45-257.

田勝昌,「15-16世紀 朝鮮時代 京畿道 廣州 官窯硏究」, 弘益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7, pp. 76-78.

尹龍二,『朝鮮時代 分院의 變遷에 관한 硏究』, 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9, p. 87.

洪順敏,「朝鮮王朝 宮闕 經營과 兩闕體制의 변천」, 서울大學校대학원 博士學位論文, 1996, pp. 202-204.
金城龜信,「首里城 '京の內'跡の發掘調査概要」,『首里城 京の內展』, 沖縄縣立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1, pp. 71-80.
矢部良明 · 長谷部樂爾,「明代の地方窯」,『世界陶磁全集』14 明, 小學館, 1976, pp. 262-263.

국문초록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지역 가마에서 제작된 청자는 백자의 태토에 청자의 유약을 입힌 '白胎靑釉磁'이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 · 접시 · 잔 · 호 · 합 · 병 등이 있으며, 형태는 백자와 유사하다. 그 외에 소량의 대야〔盤〕 · 향로 · 의자〔墩〕 · 화분 · 받침 등이 제작되었으며 고려시대 청자의 장식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 청자와 관련된 기록으로 『經國大典註解』와 『光海君日記』에서 '御膳用은 白磁, 東宮은 靑器, 禮賓用은 彩文器를 사용한다'고 하여 청자가 동궁의 기명임을 알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조선시대 청자가 동궁 기명으로 채택된 역사적 배경과 시기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청자가 동궁의 기명으로 선택된 시기는 世祖 시기인 약 1460년경으로 추정되며 왕실의 위계질서를 위해 어기인 백자와 구분하여 동궁의 기명으로 청자를 정하게 되었다. 청색의 그릇이 사용된 이유는 조선 왕조의 이념인 儒敎의 陰陽五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이 될 인물인 세자는 새벽을 상징하며 東과 靑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동궁의 기명 선택에서도 자연스럽게 靑色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청자 그릇의 형태와 유색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특징을 이루는데, 성립기 · 전성기 · 쇠퇴기 세 단계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립기(1420–1460년경)는 백태청유자가 기술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이다. 두텁고 짙은 녹색의 유약이 시유된 대접과 접시가 생산된다. 전성기(1460–1592년경)는 얇고 고루 시유된 하늘색과 연한 녹색의 유조가 최고 절정을 이루며, 다양한 기종의 청자가 제작된다. 그 외에 고려의 장식기법을 이용한 화려한 향로, 의자, 대야, 화분 등도 제작된다. 쇠퇴기(1592–1659년경)는 그릇의 종류가 줄어들고 청자의 빛깔이 황색기를 띠게 된다. 청자의 소멸 이유는 1616년 『光海君日記』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데, 신분에 따른 기명 사용의 구분이 흐트러져 어기인 청자의 사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경기도 廣州에서 제작된 조선시대 靑磁는 새로운 기술과 儒敎 文化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東宮의 器皿이며 도자문화의 한 조류로 위치한다.

Abstract

Joseon-period Celadons Produced in Royal Kilns

Kim Young-mi*

Celadons produced in Gwangju-area kilns during the Joseon period were so-called *Baektaecheongyuja* which are basically white porcelains coated with celadon glaze. The types of celadons then ranged from bowls and plates to cups, jars, lidded bowls, and vases. These celadons were similar in design to white porcelains produced during the same period. Small quantities of basins, incense burners, stools, potting plants, and trays were also produced. These wares were decorated by the ornamental techniques passed down from the Goryeo dynasty. Information related to Joseon-period celadons can be found in *Gyeongguk Daejeon Juhae* (Annotated National Code) and *Gwanghaegun Ilgi* (Diaries of King Gwanghaegun) where they are described as dishes used in Donggung, the Crown Prince's Palace, in contrast to white porcelains which were used for the king's table and porcelains with color underglaze motifs, reserved for reception and entertainment. This paper explores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selection of celadons as tablewares for the Crown Prince's Palace and how this practice evolved over time during the Joseon period.

Celadons are presumed to have been officially selected as tablewares for the crown prince around 1460. This decision was part of the expanding body of customs and practices within the royal palace, reflecting the hierarchy among members of the royal house, and was meant to

* Curator at the Gyeonggi Provincial Museum

distinguish the crown prince's tablewares from the king's own. The choice of blue-colored dishes is likely to have been based on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closely linked to Confucianism, which was the official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Dawn was the favorite symbol of the crown prince, as the future ruler of the kingdom, and the direction 'east' in the name 'Donggung (Eastern Palace),' the Crown Prince's palace, and the color blue were also associated with the symbolic image of dawn. Hence, blue, a color with a pre-existing symbolic tie with the crown prince, was a rather obvious choice.

Joseon celadons varied in terms of shape and glaze color depending on the period. There are roughly three stages in the evolution of Joseon celadons: the introductory, growth and maturity, and decline phases. The technique of applying celadon glaze to porcelains was first introduced between 1420 and 1460, corresponding to the beginning of the introductory period, when bowls and plates with a thick coat of dark green glaze made their appearance. During the growth and maturity period (circa 1460–1592), with the production of finer wares coated with a thin and even layer of light blue or green glaze, Joseon's celadon-making reached its heyday, and a wider variety of vessels were made using this technique around this time. This period also saw the production of ornate incense burners, stools, basins and potting plants, brilliantly adorned using decorative techniques inherited from Goryeo. The decline period (circa 1592–1659) was marked by a smaller variety of vessels produced in this style and the appearance of a yellowish hue undercutting the beauty of the celadon glaze.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decline in celadon production, discussed in a 1616 entry of the *Gwanghaegun Ilgi*, was the blurred tableware code in the royal house.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ablewares of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faded away, the demand for celadon wares died out eventually.

Joseon celadons, produced chiefly in royal kilns located in Gwangju, Gyeonggi-do, for use in the Crown Prince's palace, constitute an important ceramic tradition of Korea, which harked back to the earlier tradition of Goryeo celadons, but were updated with new techniques and new cultural inspirations from the Confucian dynasty of Joseon.